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권리인식, 아동학대인식과의 관계

김은정¹, 김해란^{2*}

¹호남대학교 간호학과, ²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Parenting Attitudes and the Recognition of Child Rights and Child Abuse among Nursing Students

Eun Jung Kim¹, Hae Ran Kim^{2*}

¹Department of Nursing, Honam University

²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Chosu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그들 부모의 양육태도와 간호대학생의 아동권리인식, 아동학대인식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 연구이다. 연구의 참여자는 G광역시에 위치한 H 대학교의 연구 참여에 동의한 간호대학생으로 총 173명이었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22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one-way ANOVA, Scheffé-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경험한 아동학대종류와 아동학대교육여부, 신고의무지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아동학대인식은 아동학대경험과 경험한 아동학대종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애정적 양육태도가 아동권리인식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과보호적 양육태도는 아동학대인식과 아동권리인식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부모의 양육태도가 간호대학생의 아동학대인식 및 아동권리인식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추후에 아동권리인식과 아동학대인식 향상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과 애정적인 부모의 양육태도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This study was a descriptive survey that investigated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s on the recognition of child rights and the perception of child abuse among nursing students. The participants were 173 nursing college students who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study at H University in G city. Data were collected from December 1 to December 31, 2022.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apply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s, one-way ANOVA, Scheffé-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using the SPSS/WIN 21.0 program. The results of the study reveal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parenting attitudes according to the type of child abuse experienced, knowledge of child abuse education, and awareness of mandatory reporting.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tained in the perception of child abuse according to the experience and type of child abuse previously encountered by nursing students. In addition, the attitude of emotional warmth parenting ha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recognition of children's rights, whereas the overprotective parenting attitude ha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recognition of children's rights and the perception of child abuse. The above results indicate that parenting attitudes are related to the nursing students' recognition of children's rights and the perception of child abuse.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intervention program to improve the recognition of children's rights and perception of child abuse among nursing students, and to educate parents on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Keywords : Parenting, Attitude, Children, Rights, Abuse

*Corresponding Author : Hae-Ran Kim(Chosun Univ.)

email: rahn00@chosun.ac.kr

Received February 2, 2023

Accepted April 7, 2023

Revised February 27, 2023

Published April 30, 2023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모든 아동은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생존의 권리, 보호의 권리, 발달의 권리, 참여의 권리로 마땅히 아동으로서 누려야 한다고 1989년 유엔에서 아동협약을 채택한 이후 전세계 196개국 이 현재까지 지키기로 하고 있다[1]. 국내에서는 2017년 아동학대 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아동학대 아동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최근 아동학대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22,367건으로 2만 건을 넘으면서 2018년 24,604건이었으며, 2018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아동학대 건수보다 많은 36,417건으로 보고되고 있다[2]. 특히 2020년에는 전세계적으로 유행하였던 Coronavirus (COVID-19)로 인하여 학교에 등교하지 않음으로써 가정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져 아동학대 위험이 높아졌다. 2020년 112에 접수된 가정 내 아동학대 관련 신고 건수는 총 42,251건이었는데, 이는 2019년보다 약 2.1% 증가하였다[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은 아동학대를 발견하기 쉽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의 신고사례는 아동학대 사례 판단의 정도가 높다[4]. 따라서 아동학대의 사건 진상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직업상 아동학대를 발견한 가능성이 높고, 학대받은 아동을 발견하고 인지할 직군에 의해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5]. 아동학대 특별법에서 신고의무자는 의료인을 포함하여 초, 중등교사, 유치원 교사, 소방구급대원, 아동복지담당 공무원, 아이 돌보미 등 총 24개의 직종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간호사는 예방접종, 성장검사, 발달 평가 등의 업무적 특수성으로 전 연령의 아동과 자주 접촉하게 되므로 신고의무자의 직종 중 학대를 확인하고 신고하는 가장 주된 역할을 해야 한다[6]. 그러나 응급 아동학대 의심사례 및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신고된 33,532건 중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9,151(27.3%)이었으며, 이중 의료인-의료기사는 325건(1.0%)으로 낮게 나타났다[2]. 이는 의료인 자신이 법적으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7]. 또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및 지식, 관련 준비정도, 신고하는 방법 및 이용 가능한 자원 활용 방법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8].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아동권리인식이 강조되고 있다[9]. 아동권리는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으로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누리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누구에게나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권리이며 발달에 맞춰 적극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이다[10]. 그러나 성인과 달리 아동은 미성숙한 상태에서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기에 아동 스스로 권리의 주체가 되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으며, 주변 환경을 조절하는데 역부족이므로 성인의 조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성인이 아동권리인식을 중요하게 다룰 경우 아동은 진정한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다[11].

아동학대인식과 아동인권인식에는 다양한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중 부모가 행하는 양육태도의 중요성이 계속 보고되고 있다[12]. 부모의 양육태도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행동이나 태도로 정의될 수 있다[13]. 한 개인의 사회화 과정 중 가정환경은 개인의 성격 및 행동적 특성을 형성하는 결정적 요인이며, 그 중 부모의 양육태도는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이다[14]. 부모가 자녀에 대해 수용적일수록 자녀는 건강하게 발달하지만, 부모가 자녀에 대해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면 아동은 공격성, 낮은 자존감, 문제 행동, 정서적 불안, 부정적 세계관 등 여러 가지 심리적, 행동적 부정을 보인다[15]. 또한 이러한 양육태도는 아동기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의 심리적 적응에까지 영향을 미쳐, 자신이 받았던 양육경험이 자녀에게 전이되어 학대나 방임을 받으면서 자랐다면 자신의 자녀를 학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16].

간호대학생은 졸업 후 임상현장인 병원 뿐만 아니라 학교와 보건소 등 다양한 환경에서 아동을 가까이 볼 수 있는 예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따라서 간호대학생 역시 아동학대와 아동권리의 체계적인 교육의 대상이어야 한다. 임상현장에서 아동학대, 아동권리인식에 대한 의료인의 지식과 실천은 아동권리옹호행동으로 이어져 아동과 그 가족들에게 치료과정에서의 완전한 참여를 돕고 회복과정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다[17]. 또한 간호대학생들도 미래에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역할을 해야 하며, 어렸을 때 부적절한 부모양육태도 받은 경우 자신도 모르게 부적절한 부모양육태도를 훈육의 한 형태로 인지하여 아동학대인식이나 아동권리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14].

이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동학대를 신속하게 선별하고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의 인식과 아동의 권리인식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청소년이나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부모양육

태도나 아동학대 인식을 보는 연구들은 있었으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의료인이 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권리인식, 아동학대인식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간호대학생의 아동권리인식과 아동학대인식과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아동권리 인식을 높이며, 아동학대의 민감도와 신고율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권리인식, 아동학대인식과의 관계를 파악해보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아동권리인식, 아동학대인식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 아동권리인식, 아동학대인식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부모의 양육태도와 간호대학생의 아동권리인식, 아동학대인식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권리인식, 아동학대인식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22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G광역시 소재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근접 모집단으로 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 후 탈락자를 제외한 총 173명의 학생을 최종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간호학과에 재학하고 있으며 정신질환 및 내/외과적인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지 않으며, 본 연구에 참여하겠다고 동의한 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자 수는 G*Power 3.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정한 결과, 효과크기를 중간으로 유의수준을 .05로 검증력을 .95로 설정하였을 때 필요한 전체 최소 표본 크

기는 138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탈락률을 고려하여 연구 대상 18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총 17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Arrindell과 Engebretsen[18]이 개발한 '양육에 대한 나의 기억(스웨덴어 'Egna Minnen Beträffande Uppfostran')' 척도의 단축형인 EMBU-short 척도를 Jo[19]가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23문항으로 애정적 양육 8문항, 거부적 양육 7문항, 과보호적 양육 8문항으로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거의 드물게', 1점에서 '대부분' 4점까지, 4 Likert 척도로, 점수의 범위는 1~4 점이다.

하위요인 중에서 애정차원은 부모가 자녀에게 수용적이며 자녀와 함께 시간을 자주 보내고 자녀의 기분을 잘 헤아려 주는 양육태도를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애정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거부 차원은 자녀에게 냉담하거나 시하고 자녀의 행동에 대해 체벌을 하는 양육태도를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거부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과보호 차원은 자녀를 과도하게 지시하거나 통제 혹은 제약하고 간섭하면서 의존심을 부추기는 양육태도를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과보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Jo[18]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4$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6$ 이었다.

2.3.2 아동권리인식

아동권리인식은 Hart와 Zeinder[20]가 개발한 아동권리인식 측정도구(Child Rights Recognition Scale, CRRS)를 Lee와 Kang[21]이 수정 보완한 도구이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이며,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중요하다' 5점까지 구성되어 있다. 도구 개발당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0$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93$ 이었다.

2.3.3 아동학대 인식

아동학대 인식은 Jang과 Lee[22]가 개발하고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수정보완한 Kim[23]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신체적 학대 11문항, 성적인 학대 6문항, 정서적 학대 8문항, 방임은 5문항으로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예는 1점, 아니오는 0점으로 측

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학대 인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6$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3$ 이었다.

2.4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22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으며, G광역시에 소재한 대학의 간호학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간호대학생의 모집은 간호학과 게시판과 카카오톡 오픈채팅 방을 활용하였다. 관심 있는 대상자가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건에 네이버폼 설문링크를 제공하였다. 설문조사는 일반적 특성과 부모양육태도, 아동권리인식, 아동학대인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조사의 소요시간은 약 10분 내외였다.

2.5 윤리적 고려

연구 시작 전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일 대학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1041223-202210-HR-15)를 받은 후 자료 수집을 위하여 연구자가 온라인으로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온라인 설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익명과 비밀보장을 약속하였고, 연구대상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됨을 공지하였다. 또한 연구 결과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이용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자료 수집 중 설문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분 이었으며,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에게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2.6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고,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권리인식, 아동학대인식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권리인식, 아동학대인식은 t-test, one-way ANOVA, 사후 검정은 Scheffé-test를 실시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 아동권리인식, 아동학대인식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 대상자 173명 중 2학년 83명(48.0%), 3학년 61명(35.3%), 4학년 15명(8.7%), 1학년 14명(8.1%) 순이었다. 성별은 여자가 158명(91.3%)으로 남자 15명(8.7%)보다 많았으며, 종교는 무교가 113명(65.3%)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독교 44명(25.4%), 천주교 10명(5.8%), 불교 6명(3.5%) 순이었다. 아동학대경험이 없는 경우가 137명(79.2%)이었으며, 아동학대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36명(20.8%)이었다. 아동학대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아동학대 종류에서 방임이 20명(11.6%)로 가장 높았으며, 정신적 학대 9명(5.2%), 신체적 학대 7명(4.0%) 순이었다. 아동학대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응답자는 142명(82.1%) 이었으며, 받지 못한 응답자는 31명(17.9%)이었고, 의료인인 간호사가 신고의무자인 것을 아는 경우는 165명(95.4%)이었고, 모른다고 하는 경우는 8명(4.6%)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7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rade	Freshmen	14	8.1
	Sophomores	83	48.0
	Joniors	61	35.2
	Seniors	15	8.7
Gender	Male	15	8.7
	Female	158	91.3
Religion	Buddhism	6	3.5
	Christian	44	25.4
	Catholic	10	5.8
	Not have	113	65.3
Experience of being abused	Have	36	20.8
	Not have	137	79.2
Type of child abuse experienced	Not have	137	79.2
	Physical	7	4.0
	Emotional	9	5.2
Experience of child abuse education	Neglect	20	11.6
	Have	142	82.1
Awareness of mandatory reporting	Not have	31	17.9
	Know	165	95.4
	Not know	8	4.6

3.2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권리인식, 아동학대인식 정도

부모의 양육태도중 하위영역인 애정적 양육태도는 평균 3.15 ± 0.56 점 이었으며, 거부적 양육태도는 평균 1.47 ± 0.47 점, 과보호적 양육태도는 2.11 ± 0.57 점이었 다(Table 2).

아동권리인식 평균은 0.82 ± 0.26 점이었고, 아동학대 인식정도 평균은 4.70 ± 0.30 점이었다.

Table 2. The descriptive values of parenting attitudes, recognition of children rights and perception child abuse. (N=173)

Variables		Range	Min
Parenting attitudes	Emotional warmth	1-4	3.15±0.56
	Rejection	1-4	1.47±0.47
	Overprotection	1-4	2.11±0.57
Perception child abuse		1-5	4.70±0.30
Recognition of children rights		0-1	0.82±0.26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권리인식, 아동학대인식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권리인식, 아동학대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아동학대 경험이 없는 경우 0.86±0.20점으로 아동학대 경험이 있는 경우 0.69±0.20점보다 아동학대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거부적 양육태도와 과보호적 양육태도에서 정서적 학대가 방임과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대상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정신적 학

Table 3. Difference of parenting attitudes, recognition of children rights and perception child abuse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73)

Characteristics	Categories	Parenting attitudes						Perception child abuse		Recognition of children rights	
		Emotional warmth		Rejection		Overprotection		M±SD	t/F(p)	M±SD	t/F(p)
		M±SD	t/F(p)	M±SD	t/F(p)	M±SD	t/F(p)				
Grade	Freshmen	25.64±4.22		11.36±3.90		18.29±6.58		0.84±0.26		4.77±0.28	
	Sophomores	24.86±4.65	0.52	10.40±3.17	1.00	16.35±4.54	1.18	0.77±0.34	2.33	4.74±0.27	1.33
	Juniors	25.41±4.35	(.668)	10.25±3.50	(.393)	17.44±3.87	(.320)	0.88±0.13	(.077)	4.65±0.35	(.266)
	Seniors	26.27±4.86		9.27±2.22		16.53±4.60		0.87±0.26		4.67±0.27	
Gender	Male	25.23±4.44	-0.03	9.53±2.82	0.97	16.67±4.34	0.22	0.82±0.27	-0.78	4.71±0.29	1.11
	Female	25.27±5.38	(.979)	10.40±3.33	(.331)	16.93±4.55	(.830)	0.87±0.17	(.434)	4.62±0.35	(.269)
Religion	Buddhism	24.99±4.94		10.41±3.49		16.64±4.70		0.88±0.06		4.73±0.11	
	Christian	26.67±4.93	0.49	11.00±3.90	0.69	17.67±4.23	1.21	0.83±0.23	0.14	4.60±0.33	2.89
	Catholic	25.45±3.54	(.687)	9.82±2.69	(.560)	16.93±4.42	(.309)	0.81±0.10	(.936)	4.62±0.22	(.057)
	Not have	26.20±3.08		11.20±3.08		19.40±2.17		0.81±0.29		4.75±0.29	
Experience of being abused	Have	25.39±4.63	0.85	10.13±3.34	-1.51	16.72±4.48	-1.05	0.69±0.40	3.52	4.75±0.24	-0.94
	Not have	24.67±4.05	(.396)	11.06±3.00	(.134)	17.61±4.69	(.296)	0.86±0.20	(.001)	4.69±0.31	(.349)
Type of child abuse experienced	Not have ^a	25.39±4.63		10.13±3.34		16.72±4.48		0.86±0.20		4.69±0.31	
	Physical ^b	24.43±4.58	0.34	10.57±3.31	3.98	17.00±1.63	3.26	0.49±0.44	8.82	4.82±0.13	10.45
	Emotional ^c	24.22±0.44	(.800)	13.89±3.33	(.009)	21.33±6.61	(.023)	0.54±0.51	a>c	4.62±0.37	(.374)
	Neglect ^d	24.60±4.82		9.95±1.82	c>a,d	16.15±3.51	c>a,d	0.82±0.29	a>c a,d>b	4.78±0.17	
Experience of child abuse education	Have	25.69±4.44	-2.89	10.02±3.23	2.64	16.42±4.05	3.14	0.81±0.29	0.96	4.71±0.30	-0.92
	Not have	23.16±4.35	(.004)	11.71±3.23	(.009)	19.16±5.81	(.002)	0.86±0.11	(.337)	4.66±0.29	(.361)
Awareness of mandatory reporting	Know	21.75±1.39	-2.26	11.75±3.73	1.26	17.38±8.80	0.30	0.82±0.27	0.51	4.70±0.30	1.06
	Not know	25.41±4.55	(.025)	10.25±3.26	(.210)	16.88±4.26	(.766)	0.87±0.14	(.610)	4.81±0.16	(.292)

Table 4. Correlations among parenting attitudes, recognition of children rights and perception child abuse. (N=173)

Variables	Parenting attitudes			Perception child abuse	Recognition of children rights
	Emotional warmth	Rejection	Overprotection		
	r(p)				
Parenting attitudes	Emotional warmth	1			
	Rejection	-.620(<.000)	1		
	Overprotection	-.218(.004)	.462(<.000)	1	
Perception of child abuse		0.004(.957)	-.131(.085)	-.277(<.000)	1
Recognition of children rights		.161(.035)	-.109(.155)	-.403(<.000)	.147(.053)

대가 방임보다 거부 양육태도에서 13.89 ± 3.33 점, 과보호 양육태도에서 21.33 ± 6.61 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방임을 경험한 경우 아동학대 인식이 0.82 ± 0.29 점으로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경우 0.49 ± 0.44 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애정적 양육태도가 25.69 ± 4.44 점, 거부적 양육태도 11.71 ± 3.23 점, 과보호적 양육태도 19.16 ± 5.81 점으로 아동학대교육을 받은 경우에 받지 않은 경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애정적 양육태도가 의료인의 신고의무를 모르는 경우가 25.41 ± 4.55 점으로 의료인의 신고의무를 아는 경우 21.75 ± 1.39 점보다 더 높았다.

3.4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권리인식, 아동학대인식의 관계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권리인식, 아동학대인식의 관계는 Table 4와 같다. 부모의 양육태도 중 하위영역인 애정 양육태도는 거부적 양육태도($r = -.620, p < .001$), 과보호적 양육태도($r = -.218, p = .004$)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동권리인식($r = .161, p = .035$)과는 통계적으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거부적 양육태도는 과보호 양육태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 = .462, p < .001$)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보호적 양육태도는 아동학대인식($r = -.277, p < .001$)과 아동권리인식($r = -.403, p <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본 연구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의료인이 될 간호대학생들에게 그들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권리인식, 아동학대인식과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아동학대 인식을 개선하고 아동학대교육프로그램 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아동권리인식은 4.70 ± 0.30 점으로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예비유아교사가 될 유아교육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24] 4.49 ± 0.35 점보다도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아동학대인식은 도구가 달라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25]에서 5점 만점에 평균 3.16 ± 1.00 으로 평균보다 높게 나왔으며,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7점 만점에 평균 5.51 ± 0.92 점으로 중간 점수

이상으로 나온 선행연구결과[26]와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도 1점 만점에 0.82 ± 0.26 점으로 중간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최근 대중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사례와 유형의 아동학대 사건들이 계속 보도되고 있으며 그 결과 아동학대와 아동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7]. 또한 간호학 교육과정에 아동학대와 아동권리에 관련된 학습목표에 따른 학습으로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28]. 최근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생인식 조사 연구는 찾기 어려워 추후 다양한 직종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을 비교 분석할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아동권리인식은 5점 만점에 4.70 ± 0.30 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유아교육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29] 결과 4.00 ± 0.39 점보다 높게 나타났고,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30] 4.42 ± 0.38 점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아동권리인식에는 성별이나 연령, 아동학대교육이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결과[25]가 있어 다양한 직종, 성별, 연령, 아동학대교육 시간에 따른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에서는 애정적 양육태도일수록 아동학대 교육을 받았다고 하였으며, 간호사가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다고 하였는데, 수용적이고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경험할수록 아동학대 인식이 높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보여진다[31]. 경험한 아동학대에서 거부적 양육태도와 과보호 양육태도에서 정신적 학대가 다른 학대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거부적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냉담하고 무시하는 경우, 과보호적 양육태도는 자녀를 과도하게 지시하거나 통제하는 경우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아동의 정서적·정신적 측면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동학대인식은 아동학대 경험이 없는 경우가 아동학대를 경험한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결과[32]와 일치하였는데, 이는 지속적인 아동학대 경험이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결과[31]와 유사한 결과이다. 특히 경험한 아동학대의 종류에서 방임이 신체적 학대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신체적 학대가 방임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아동학대 주요통계결과[3]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는 예비의료인이 될 간호학과 전공 특성상 아동학대 중 잘 드러나지 않는 방임의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아동학대교육 시 방임에 대한 내용 구체적인 사례나 형태를 통한 아동학대교육 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애정적 양육태도는 거부적 양육태도, 과

보호 양육태도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거부적 양육태도와 과보호적 양육태도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애정적 양육태도는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에 가까우며, 거부적 양육태도는 과보호적 양육태도는 부정적이고 통제적인 태도에 가까워 나온 결과로 보여진다. 또한 애정적 양육태도는 아동권리인식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과보호적 양육태도는 아동권리인식과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수용적인 양육태도를 경험할수록 아동권리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양육태도 중 거부적 측면을 많이 경험한 학생들은 아동권리인식이 낮다는 연구결과[33], 부모의 영유아권리 인식이 높을수록 영유아에게 수용적이고 따뜻하며, 자율성을 인정한다는 연구결과[34]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에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권리인식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아동학대인식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아동학대인식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는 과보호적 양육태도는 학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35]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며, 부모가 자녀에게 과도한 기대나 간섭을 하는 경우 아동학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36]와 비슷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아동을 위한 양육태도가 아니며, 지나친 집착과 통제로 인하여 오히려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부모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 들이는 양육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다양한 심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아동학대 인식에도 영향을 미친다[36]. 따라서 아동학대인식, 아동권리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부모의 수용적이고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필요함을 인지하고, 미래의 부모가 될 간호대학생들에게도 아동학대인식, 아동권리인식 교육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양육태도와 관련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추후 다양한 직종의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학대인식, 아동권리인식의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봄으로써 본 연구 결과를 확장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미래의 신고의무자가 될 간호대학생 부

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아동학대인식, 아동권리인식 정도를 살펴보고, 이들이 경험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학대인식, 아동권리인식과의 관계를 확인해보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G광역시 H대학교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라 아동학대인식, 아동권리인식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들은 아동학대인식이나 아동권리인식의 수준을 연구하는 수준에 머물렀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아동학대인식, 아동권리인식을 관련성을 보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일개 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제한점이 있어 추후 대상자 확대에 따른 반복연구가 필요하며, 시대에 따른 환경적 변화나 직종에 따른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신고의무자가 될 관련 전공 대학생들에게 표준화된 내용의 체계적인 아동학대인식과 아동권리인식 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자녀에 대한 자율성을 지지하고 애정적 양육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긍정적인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아동학대가 더 이상 개인이나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 개선과 함께 현장성 있는 제도 개편과 정책 시행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Th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Newyork, Unicef, 2019.
- [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tstistics on Child Abuse 2019,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 2019.
- [3]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tstistics on Child Abuse 202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 2022.
- [4] Special Act on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 Law no. 14224. Korea: Ministry of Justice., 2017.
- [5] S. A. Lee, H. B. Jo, "A study on activation plan of child abuse reporting system", *Korean Criminal Psychology*, Vol. 14, No. 2, pp. 121-136, 2018.
DOI: <http://dx.doi.org/10.25277/KCPR.2018.14.2.121>
- [6] S. S. Eisbach, M. Driessnack, "Am I sure I want to go down this road? Hesitations in the reporting of child maltreatment by nurses." *Journal for Specialists in Pediatric Nursing*, Vol. 15, No. 4, pp.317-23, 2010.

- DOI: <https://doi.org/10.1111/i.1744-6155.2010.00259.x>
- [7] H. J. Shin, "Perceptions and report attitudes of pediatric nurses toward child abuse,"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Vol. 19, No. 5, pp. 995-1002, 2018. DOI: <https://dx.doi.org/10.9728/dcs.2018.19.5.995>
- [8] Y. H. Cho, Y. H. Chung, "Child abuse recognition and related factors among Korea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Agricultural Medicine and Community Health*. Vol. 38, No. 2, pp. 85-96, 2013.
- [9] M. Y. Jung, *Effect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perception of child rights on the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by using child abuse recognition as a medium*,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2018.
- [10] Y. H. Moon, "A report on childhood abuse damage experiences and adult personality disorders", *Journal of Korean Child Protection*, Vol. 5, No. 1, pp. 25-55, 2009.
- [11] H. J. Park, J. K. Kim, "The effects of childcare teachers' sensitivity, awareness of children's right and organization culture on the implementation of childcare respecting rights for infants",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2021. Vol. 25, No 3, pp. 285-304. DOI: <http://doi.org/10.21459/kccr.2021.25.3.285>
- [12] Y. O. Ha, "Nursing Students' perceptions of child abuse and factors influencing those perceptions,"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Vol. 24, No. 2, pp. 178-185, 2018. DOI: <http://doi.org/10.4094/chnr.2018.24.2.178>
- [13] K. H. Non, D. D. Hahn,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 on aggression and sense of school community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Vol. 27, No. 1, pp. 159-180, 2017. DOI: <http://dx.doi.org/10.21024/pnuedi.27.1.201703.159>
- [14] M. Park, D. Oh, "Effect of parental bring-up attitude on child abuse awareness amo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9, No. 10, pp. 452-462, 2019. DOI: <https://doi.org/10.5392/JKCA.2019.19.10.452>
- [15] J. Y. Kim, M. K. Jin, "The mediating effects of rejection sensitivity between parenting attitudes and interpersonal problems by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6, No.4, pp. 355-378, 2019. DOI: <http://dx.doi.org/10.21509/KJYS.2019.04.26.4.355>
- [16] W. J. Park, "The moderating effects of emotional support, facilitative relationship in the relation between father and mother's emotional abuse and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0, No. 7, pp. 255-264, 2019. DOI: <https://doi.org/10.5762/KAIS.2019.20.7.255>
- [17] M. Liaqat, R. Awan, I. Liaqat, R. Asghar, "Assessment of child rights awareness among pediatric doctors and nurses in Tertiary Hospitals, Lahore.", *International Journal of Caring Sciences*, Vol. 11, No. 3. pp.1623-1630, 2018.
- [18] W. A. Arrindell, A. A. Engebretsen, "Convergent validity of the short-EMBU and the parental bonding instrument (PBI): Dutch findings",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Vol. 7, No. 4, pp. 262-266, 2000. DOI: [https://doi.org/10.1002/1099-0879\(200010\)7:4<262::AID-CPP257>3.0.CO;2-9](https://doi.org/10.1002/1099-0879(200010)7:4<262::AID-CPP257>3.0.CO;2-9)
- [19] H. I. Jo, "The effec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and internet use motives on internet addiction: Self-control as a mediator",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Vol. 13, No. 4, pp.269-287, 2011.
- [20] S. N. Hart, M/ Zeidner, "Children's rights perspectives of youth and education: Early findings of a cross national project."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s Right*. Vol. 1, pp. 165-199. 1993.
- [21] J. Y. Lee, S. H. Kang, "A child's perception of rights children and rights." *Children and Child's Rights*. Vol. 1, No. 1, pp. 65-83, 1997.
- [22] H. J. Jung, J. Y. Lee, "The development of a child abuse assessment scale(l)",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s Rights*. Vol. 3, No. 1, pp. 77-96, 1999.
- [23] H. J. Kim, *Knowledge of ED nurses on child abuse*,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2008.
- [24] J. E. Oh, I. S. Choi, "An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perceptions of children's rights, play beliefs, and play teaching efficacy in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Vol. 26, No. 2, pp. 195-212. 2022. DOI: <http://doi.org/10.21459/kccr.2022.26.2.195>
- [25] J. H. Kim, O. Y. Kim, "Effects of day care center teachers' human right sensitivity on their perception of the child abuse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job stress-", *The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Vol. 7, No. 2, pp. 55-79. 2022. DOI: <https://doi.org/10.52384/JECEC.2022.7.2.55>
- [26] S. I. Kim, J. Y. Kang, "The effects of child maltreatment prevention education on the intention to report child maltreatment among future mandatory reporters: The mediating effects of knowledge of recognizing and reporting child maltreatment,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Vol. 55, pp. 373-400. 2017. DOI: <https://doi.org/10.17997/SWRY.55.1.13>
- [27] K. H. Kim, "A survey of nursing students' perceptions on child abuse",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Vol 1, No. 2, pp. 21-30, 2017.
- [28] S. W. Lee, W. C. Cha, T. G. Shin, M. S. Sim, I. J. Jo, K J. Song, et al. "A survey of emergency healthcare workers' views about child abuse".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Vol 17, No. 1, pp. 85-93, 2014.

- [29] T. S. Bae, J. S. Hong, "The mediating effect of disconnection and rejection schema and rejection sensitiv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s and social anxiety." *Journal of Parent Education*, Vol. 13, No. 3, pp. 97-120, 2021.
DOI: <https://doi.org/10.36431/JPE.13.3.5>
- [30] J. H. Song, S. K. Park, "The effects of childcare teacher's recognition of children's rights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respect for children's rights."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Welfare*, Vol. 25, No. 2, pp. 103-126, 2021.
DOI: <https://doi.org/10.22590/ecee.2021.25.2.103>
- [31] M. J. Park, D. N. Oh, "Effect of parental bring-up attitude on child abuse awareness amo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9, No. 10, pp. 452-462, 2019.
DOI: <https://doi.org/10.5392/JKCA.2019.19.10.452>
- [32] L. W. Kim, *The factors on the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 of the severity of child abuse and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ki University, Suwon, Korea, 2021.
- [33] S. Y. Lee, S. O. Hong,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itude in childhood and awareness of infant and child rights: A study on K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Vol. 23, No. 3, pp. 423-439, 2019.
DOI: <http://doi.org/10.21459/kccr.2019.23.3.423>
- [34] M. Y. Lee, H. O. Lee, "The effect of childhood-attachment experience, personality and parenting belief on maternal role performance among mothers of young children",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Vol. 10, No. 1, pp. 169-188, 2015.
DOI: <http://doi.org/10.16978/ecec.2015.10.1.008>
- [35] S. H. Oh, H. A. Kang, "The influence of fathers' child-rearing involvement of medium-sized cities in Korea and China upon young children's leadership",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Vol. 19, No 4, pp. 663-685, 2015.
- [36] H. T. Lee, "The effect of overprotective parenting behaviors to adolescents' depression and mediation effect of child abuse", *Youth facilities and Environment*, Vol. 15, No. 3, pp.77-87, 2017.

김 은 정(Eun-Jung Kim)

[정회원]



- 2004년 2월 :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학사)
- 2009년 2월 :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석사)
- 2013년 8월 :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박사)
- 2013년 8월 ~ 현재 : 호남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아동간호학, 응급간호학, 시뮬레이션

김 해 란(Hae-Ran Kim)

[정회원]



- 2004년 2월 :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학사)
- 2009년 2월 :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석사)
- 2012년 2월 :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박사)
- 2012년 3월 ~ 2018년 3월 : 호남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8년 4월 ~ 현재 :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간호교육